

대한민국 반값여행 원조 강진, '체류형 관광지' 우뚝

전국 최초로 '반값여행'을 시작한 강진군이 '대한민국 반값여행의 원조'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 내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중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반값여행 사업 재원으로 군비 30억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 1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등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여행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부담 없이 강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365일 반값여행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기준 강진 반값여행은 총 2만1924팀이 사전신청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만3785팀이 실제 강진을 방문했다. 관광객들은 강진에서 총 41억9000만원을 소비했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의 최대 50%를 모바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숙박·식당·농수축임산물 구매 등 연중 반값 혜택 문체부 지역사랑휴가지원비 등 사업비 60억 확보

관광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강진군 정책 모델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국가정책화를 이끌어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반값여행 1차 사전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6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사업 시행 약 2주 전에 별도 공지된다.

반값여행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강진 반값여행'을 검색하면 나오는 강진 반값여행 홈페이지(gangjintour.com)를 통해 가능하다. 관광객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부터 정산신청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 반값여행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대한민국 반값여행의 원조가 된 정책으로,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은 다시 살아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연중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인지도는 찾고 싶은 '365일 관광도시 강진'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지난달 개장한 마량농도수산물시장에서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구경하고있는 모습.

사진제공=강진군청

진도,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지역상품권 활성화

군, 스탬프 개수 따라 최대 1만5000원 상품권 지급

진도군은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활용한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도장(스탬프) 개수에 따라 4개 이상은 5000원, 8개 이상은 1만원, 12개 이상은 1만5000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관광객은 도장(스탬프)을 인증한

후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체험관, 진도아리랑체험관에서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구글플레이장터(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 '스탬프투어' 앱을 내려받아 진도군을 선택한 후, 주요 관광지나 체험 장소를 방문하고 도장(스

탬프)를 수집하면 된다.

올해 도장(스탬프) 수집 장소는 '살라에술정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28개소, 서해랑길 여행 경로(투어 코스) 6개소, 체험장 8개소이며, 진도의 자연과 문화, 체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특산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류형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체험업체와의 연계로 참여형 관광 요소를 강화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을 즐기고 지역상품권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진도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재즈 디바 나윤선 지리산 천은사서 특별 공연

29일 '2026 지리산재즈페스티벌 봄 공연' 무대...유료 공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사진)이 구례군 지리산 지락 고찰 천은사에서 공연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2026 지리산재즈페스티벌 봄 공연'이 무대. 지리산재즈페스티벌은 지리산 자연환경과 사찰 문화, 재즈 음악을 접목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아 왔다.



각국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재즈 연주자들이 함께 한다.

뉴욕 기반의 베이시스트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슨,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드러머 알르튀르 알라르,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마티스 파스코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날 나윤선은 천은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나윤선 재즈 보컬 퀸 공연을 선보인다.

유료 공연으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나윤선의 13집 앨범 'Lost Pieces' 발매 기념 국내 투어 공연의 일환인데, 세계

구례=이민구 기자 city@gjdream.com

곡성,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교체 우편 등 물류서비스 정확도 높여

곡성군은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들의 주소 확인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색이 바래거나 훼손돼 주소 식별이 어려워져 우편물 오배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물번호판 설치 후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교체 중으로, 지난해 주소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의 건물번호판 1969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노후 건물번호판 162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옥곡면, 입면, 곽면, 오산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 시키는 것은 물론, 우편 등 물류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 시 세부 위치 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훼손된 번호판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우편·택배·방문 민원 등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범 기자 hnnews1@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태인동 명당3지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기공식과 함께 안전지원제를 개설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광양 태인동에 건립

시, 기공식·안전지원제 개최...내년 11월 준공 예정

광양시는 최근 태인동 명당3지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기공식과 함께 안전지원제를 개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이상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관리이사, 김성수 미래산업국장, 공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은 태인동 명당3지구 3만3000㎡ 부

에 사업비 334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건립되며, 2027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총 6층 건물인 전남연수원은 연수시설, 기숙사, 컨벤션홀, 체육시설과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교육시설로 축구장 등은 일반시민에게 상시 개방, 시민 친화형 교육시설로 활용된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간 3500여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철강, 석유

화학, 이차전지 등 광양관련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특화교육과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AX),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분야 인력양성 교육 전문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은 지역 중소기업 인재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육기반이 될 것이다"며 "광양시도 연수원이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해남,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20명 입국

해남지역 농촌 현장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배정받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120명이 최근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로, 해남 4개 농협(옥천, 황산, 땅끝, 문내)에 배치돼 농작업 지원에 나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업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

망이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원활한 근무를 위해 입국 초기 교육과 생활 안내 등을 실시하고, 농협과 협조해 근로환경 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군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이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과 협력해 농촌 인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농특산물, 광주 대단지 아파트서 '완판'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매출 7400만원 돌파

영암군이 광주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손잡고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성공적인 유통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광주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 광장에서 열린 '영암군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와 업체 20곳이 힘을 모아 축산물부터 전통주, 무화과빵, 친환경 쌀까지 영암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현장의 열기는 숫자로 증명됐다. 행사 기간 집계된 총매출액은 7485만원으로, 지난해 거둔 성적을 가뿐히 넘어섰다. 특히 왕인식품과 민물장어수협 등 7개 신규업체가 가세하며 품목이 더욱 풍성해진 점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터를 방문한 아파트 주

민들은 산지에서 직송된 농특산물을 직접 시식하고 확인하며 영암 농산물의 우수성에 높은 신뢰를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가 깊다. 단순한 물건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는 고품질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직거래 방식이 농가 소득 창출과 도시 소비자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도농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상생 행사를 더욱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광주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 광장에서 열린 '영암군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

사진제공=영암군청